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업훈련/구직자훈련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21년 평가 등급 : 양호

## 1 사업 주요내용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지원
- (사업 내용) 일반 지산맞,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근로자 숙소, 공용 통근버스)등 자치단체 주도 일자리 사업 지원

### ☐ 예산 및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input type="checkbox"/>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153,022	151,522	147,530 (97.4)	148,029	△4,99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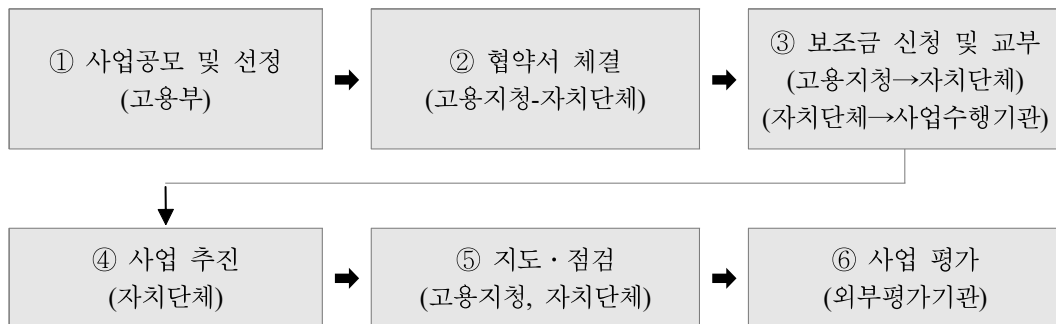
##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 주요 지원대상

- 지역 내 미취업자 대상

## □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



##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대상 증가(5개소→9개소)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 참여자 현황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9,451명이며, 이 중 남성은 4,850명(51.3%), 여성은 4,600명(48.7%)으로 참여자 성별 비중은 유사함
- 본 사업 참여자 중 청년(15~34세)은 4,552명(48.2%), 중년(35~54세)은 3,607명(38.2%), 장년(55~64세)은 1,118명(11.8%), 고령(65~90세)은 173명(1.8%)으로, 청년·중년층의 비중이 높음

〈표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업훈련 전체	1,800,137 100	832,706 (46.3)	964,589 (53.6)	756,064 (42.0)	775,410 (43.1)	211,236 (11.7)	54,559 (3.0)
구직자훈련 전체	353,787 100	141,099 (39.9)	212,666 (60.1)	198,217 (56.0)	102,720 (29.0)	45,293 (12.8)	7,519 (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9,451 100	4,850 (51.3)	4,600 (48.7)	4,552 (48.2)	3,607 (38.2)	1,118 (11.8)	173 (1.8)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량지표별 결과

〈표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성과지표

(단위: %, 일)

	중도 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6개월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직업훈련 전체	9.4	53.5	61.7	97.7	101.2
구직자훈련 전체	10.0	53.5	58.1	97.7	101.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	52.9	58.6	108.1	99.5

## □ 만족도 조사 결과

〈표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직업훈련 전체	4.16	4.14	4.22	4.31	4.18	4.13	4.26	4.19	4.24	4.07
구직자훈련 전체	4.17	4.21	4.22	4.33	4.20	4.13	4.26	4.19	4.23	4.0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04	4.10	4.13	4.22	4.08	4.04	4.22	4.07	4.16	3.76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

2) 전반적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는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주관적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호감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상대적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를 나타냄

###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 사업의 중요성

- 지역단위의 고용사업은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은 중요함
- 아울러 자치단체간 역량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격차가 심하여 이러한 격차해소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서 국가의 자치단체의 협력적 지원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적 시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됨

#### □ 일자리 사업 성과

-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치단체의 75.3%(183개)가 참여하고, 429개의 사업이 시행되는 등 자치단체의 관심과 사업의 다양성을 통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
- 특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 중심에서 지역 고용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21년 말 기준 6,330명의 일자리 창출
-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여건 악화에도 부처 제공자료에 의하면 총 28,7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5,008명의 취약계층이 취업에 성공함
- 다만 자치단체 주도의 협업모델임에도 중도탈락률이나 취업률 성과가 다른 유사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

## □ 운영의 적절성

- 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 활용 개선, 지원기준 완화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이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기조 등은 현행 노동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판단됨
- 아울러 '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고용악화에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 것은 시의성 있었음
- 다만, 여전히 중앙단위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일부 운영 기관은 동 사업과 중앙단위 유사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음

## □ 제도개선 노력

-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동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0회에 걸친 현장점검, 중간점검 등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이 개선 노력은 인정됨
-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치단체의 주도성 강화, 유사 사업 문제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은 미흡함

## □ 특성화 지표

- '고용서비스 취업률'의 경우 동 사업 중 고용서비스의 비중 증가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지표로 판단됨.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지표인만큼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도전성 여부가 판단될 것임. 아울러 동 지표 도입에 따라 다양한 시험적 고용서비스 시행 노력을 위촉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함
- '기업지원사업 고용증감률'도 동 사업 성과 측정지표로는 적절함. 다만 지원기간내 피보험자 변동이 동 사업 지원의 직접적 결과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동 지표는 이중 차분법 등을 통한 사업자체의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